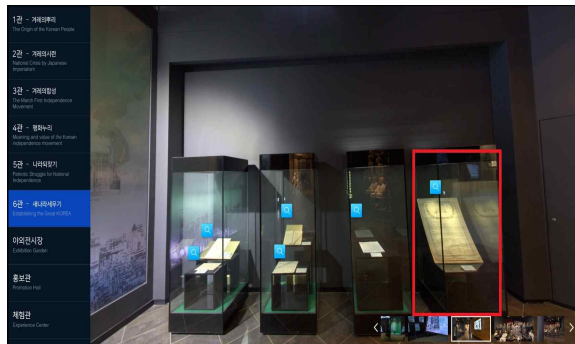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설서

■ 사이버 전시관 이용 방법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전시-상설전시-제6전시관-사이버 전시관

오른쪽 아래의 사진(커서를 이동하여 번호확인)선택 후 표시된 전시물을 클릭하여 관람



○ 사이버 전시관 위치: 6_020 화면에서 뒤로 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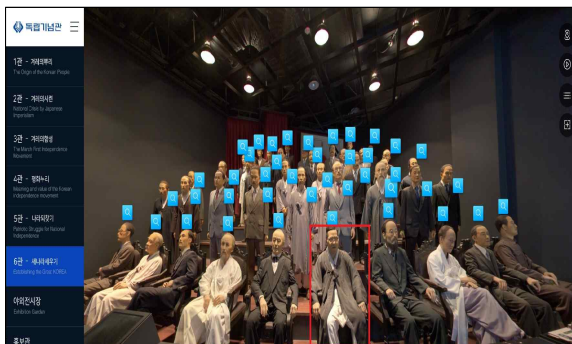
○ 학습자: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2쪽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1919년 3월 1일 우리민족은 전 세계를 향해 조선이 독립 국가이고, 조선인이 자유 민족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를 알리기 위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시위가 퍼지고 있던 1919년 4월 상해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새로운 나라와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데 근본이 되는 헌법도 만들었는데 이를 '임시헌장'이라고 합니다.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밝혀 4000년이 넘는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곧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에는 3·1독립선언서와 함께 임시헌장이 실려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전시관 위치: 6_021

○ 학습자: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3쪽

- 중국으로 가기 전 김구의 삶

김구는 가난한 상민집안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해 양반이 되려고 했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후 관상학¹⁾을 공부하는데 자신의 얼굴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매우 실망을 합니다. 과거에서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김구는 책의 마지막 구절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

이 마음 좋은 것만 못 합니다'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김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 임시정부의 문지기 김구

김구는 3·1운동이 일어나자 44살의 나이에 상하이로 갑니다. 선생이 안창호에게 임시정부를 지키는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하자 안창호는 '경무국장'의 일을 맡겼는데 경무국은 지금의 경찰청과 같은 곳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사람이 없는지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 사이버 전시관 위치: 6_023 오른쪽 이동

○ 학습지: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4쪽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창설

3·1운동 후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독립전쟁을 선택하고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갑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백린은 “앞으로의 전쟁의 승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가져갈 것이다”고 말하며 공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그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죠.

임시정부는 우선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한인비행사 양성소를 세웁니다. 그 어느 활동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쌀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백만장자 김종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포들의 도움과 노백린 장군의 열정적인 지휘아래 양성소가 세워졌지만 연이은 홍수로 김종림의 쌀농사가 피해를 입으며 1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박희성, 이용근 같은 훈련생은 미국의 비행학교에 입학해 결국 비행가 자격증을 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이들을 ‘육군 비행병’으로 임명해 이후 전쟁을 대비했는데 임시정부가 일본과 전쟁할 때를 기다리며 끊임 없는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전시관 위치: 6_027

○ 학습지: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5쪽

- 임시정부 이동시기 김구 피난처

윤봉길의 의거 성공 후(1932년) 김구는 일본의 추격을 피해 상해를 떠나 피신을 합니다. 당시 김구 체포에 일본은 6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 지금의 250억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보면 김구가 당시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항주, 가흥에 피신하였는데 추푸청(褚輔成)이라는 중국인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구는 가흥에 있을 때 추푸청(褚輔成)의 양아들 천통성(陳桐生)집에서 지냈는데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광동성이 고향인 중국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흥까지 일본의 추격이 이어졌고 매우 위험할 때에는 자신이 있었던 2층 왼쪽 방에서 비밀통로를 통해 1층으로 빠져나와 호수에 떠있던 배를 타고 호수 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 호수는 '남호'라는 호수인데 호수의 많은 유람용 배들은 주로 여자들이 배를 저었습니다. 김구는 '주아이바오'라는 중국 여성의 도움으로 배안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김구는 자신이 쓴 '백범일지'라는 책에도 이 여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는데,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하기까지 약 8년은 이와 같은 많은 중국인들의 도움이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 사이버 전시관 위치: 6_029

○ 학습지: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6쪽

- 한국 광복군 창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천성 충칭에 도착한 1940년 정규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일제가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을 일으키며 전쟁을 확대해 나가고 일제의 패망이 예상되자 임시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합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한국광복군은 연합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또 중국에

있던 미군과 함께 국내로 직접 들어와 일본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찾으려는 작전의 훈련을 마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국 광복군은 전쟁에 참여해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 사이버 전시관 위치: 6_030

○ 학습지: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6쪽

- 광복과 한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청에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약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던 그토록 바라던 광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군사활동을 다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김구는 '주석'을 맡고 있었으며, 어느덧 7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7년간 중국에서 독립 운동하는 중에 부인, 어머니, 큰아들을 잃었고 안창호, 이동녕 등 많은 독립운동가 선배들도 잃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독립을 확신할 수 없었던 그때,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나라를 다시 찾을 때까지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립 운동한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